

JEONG MIN

Frontend Developer

harinworld95@gmail.com 
<https://github.com/harinworld> 
<https://harinworld.tistory.com> 

Edu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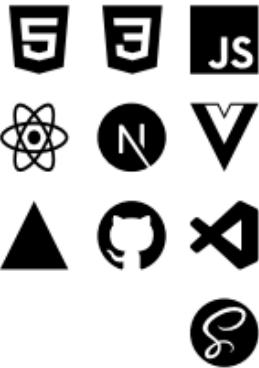
그린컴퓨터 아카데미 프론트엔드
2022.11 ~ 2023.04

대진대학교 연극영화 (편입, 졸업)
2017.03 ~ 2019.02

Career

퓨처서비스 (영상기획, 편집)
2021.04 ~ 2022.10

Skills



ABOUT ME

'Stay hungry stay foolish'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구인 스티브잡스의 명언처럼 멈추지 않고 항상 배우는 개발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양경민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인터넷으로 해결하는 지금, 저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개발자를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핵심역량

- HTML, CSS, Javascript를 활용한 개발경험
- React에서의 api호출과 Scss를 활용한 개발경험
- Next.js와 SQL을 활용한 팀프로젝트 개발경험
- NextAuth를 활용한 sns 로그인 기능 구현
- github를 활용한 팀프로젝트 경험

Project

안중근 생애페이지 리뉴얼 사이트



■ 프로젝트 기간
2022.12.26 ~ 2023.01.10

■ 프로젝트 컨텐츠

해당 프로젝트는 팀프로젝트로 진행되었으며, 기존의 안중근의사 기념관 사이트를 비주얼적 요소를 더해 리뉴얼하여 제작한 웹사이트입니다. html, scss, javascript로 제작되었고, 제가 맡은 부분은 인트로 페이지와 메인 페이지 입니다.

영화, 뮤지컬 리스트 프로젝트



■ 프로젝트 기간
2023.01.19 ~ 2023.02.09

■ 프로젝트 컨텐츠

해당 프로젝트는 팀프로젝트로 진행되었으며, React에서 api를 호출하여 영화 순위를 보여준 프로젝트입니다. React, scss로 제작되었고, 제가 맡은 부분은 전체적인 디자인과 Movie페이지 부분입니다.

ghibli 팬페이지 프로젝트



■ 프로젝트 기간
2023.02.24 ~ 2023.03.20

■ 프로젝트 컨텐츠

해당 프로젝트는 팀프로젝트로 진행되었으며, React 프레임워크인 Next.js를 사용하여 제작된 'ghibli' 팬페이지 프로젝트입니다. 스타일은 scss로 적용하였고, 제가 맡은 부분은 전체 디자인과 인트로, 메인페이지, 로그인페이지입니다.

자기소개서

지원 동기 및 포부	<p style="text-align: center;">“Stay hungry Stay foolish”</p> <p>최근 세상의 모든 일은 인터넷, 모바일로 처리됩니다. 저 또한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인터넷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상 속에서 저는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을 보면서 사용하기 좋은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불편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은 어떻게 개선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했습니다. 그후 저는 평소 제가 여러 프로그램들을 사용할 때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부분과 영상직무에서의 아쉬움을 느끼던 중 프론트엔드 개발자라는 직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론트엔드라는 직업을 알게 된 후 사용자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개선하고 사용자가 사용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개발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p> <p>그후 저는 프론트엔드로의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며 느낀 점 중 하나는 아무리 개발자더라도 프론트엔드라면 UX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이에 이전 영상직무에서 어느 정도 익혔던 디자인 틀들이 전혀 무의미한 것들이 아니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후 계속되는 공부와 프로젝트에 필요한 디자인 요소들을 제작하면서 프론트엔드라는 직업에 더욱 애착이 생겼습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스티브잡스의 말처럼 앞으로도 배움을 계획하지 않고 사용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개발자가 되겠습니다.</p>
성격 장점 및 단점	<p style="text-align: center;">“소통의 중요성”</p> <p>대학 시절부터 연기라는 매체로 여러 사람들을 만나 소통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소통이 자연스러워졌고 어떻게 하면 의견을 잘 조율할 수 있는지 턱들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좋아하고 만약 의견이 다른 사람이 있어도 그 안에서 제가 배울 수 있는 점이 있으면 배우려고 노력하곤 했습니다.</p> <p>물론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다 보면 항상 좋은 상황만 있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소통은 프론트엔드 개발자로서 있어서는 안될 점을 해내야 합니다.</p> <p>더불어 제 성격의 장점은 꼼꼼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창 시절부터 실수하지 않으려 경도하는 것이 일상이었고, 연기를 하면서는 대사를 완벽히 외우려 애썼고, 회사 생활에서는 마감 시간과 수정 사항을 완벽히 및추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꼼꼼한 성격은 개발을 하면서도 나타났습니다. 마치 틀린 그림 찾기처럼 오류가 나는 코드에서 저는 비교적 오타를 잘 찾아냈고 워크프로젝트에서도 팀원들이 놓치고 지나간 문제를 찾아서 오류를 해결하기도 하였습니다.</p> <p>이처럼 좋은 점만 있을 것 같은 저의 꼼꼼함은 가끔 너무 지나쳐 굳이 이해도를 불필요한 걱정이 많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문제를 생기면 혼자 고민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통의 중요성을 언급한만큼 저의 단점은 소통으로 해결해나갈과 동시에 저의 장점인 꼼꼼한 성격으로 팀원들이 발견하지 못한 오류를 찾아 발전하는 개발자가 되겠습니다.</p>
교육 활동 (경험 사항)	<p style="text-align: center;">“익숙함을 넘어 새로운 향해”</p> <p>익숙했던 영상업무를 뒤로하고 개발자의 꿈을 품기 시작한 후 자신 있게 공부를 하기 시작했지만 정말 처음 접하는 컴퓨터 언어들의 등장으로 당황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개발공부를 하며 한순간도 개발자의 꿈을 선택한 것을 후회한 순간은 없었습니다. 공부를 하며 잘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참도 할 이루지 못하는 날들도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시작으로 많은 노력을 쏟은 저의 모습을 보며 스스로 놀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저는 개발공부를 하면서 잊고 지내던 저의 모습들을 다시 마주하기도 하였습니다.</p> <p>저는 개발공부를 더욱 열심히 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로 ‘그린컴퓨터아카데미’에서 진행했던 팀프로젝트를 꼽고 싶습니다. 실제로 개인 프로젝트도 공부가 많이 되지만 체계로부터 끌까지 혼자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신에게 관대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팀프로젝트에서는 자신에게 관대해지면 팀에 피해를 주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긴장감 속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고 팀원들에게서 배우는 점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p> <p>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공부했던 점들을 되짚어보자면 <code>html</code>, <code>css</code>, <code>javascript</code>로 계가 기획했던 것들을 실제 화면에 구현시키며 상당한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 자바스크립트의 라이브러리인 리액트와 <code>api</code>를 사용해 배포를 해보며 실제 웹페이지의 모습을 구현해보니 프론트 개발에 대한 즐거움이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팀프로젝트에서는 리액트의 프레임워크인 <code>next.js</code>를 사용하고 <code>sql</code>을 접목시키는 경험을 했습니다. 또한 <code>vue.js</code>와 타입스크립트의 문법을 공부하여 개인공부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프로젝트를 경험하고 개인적인 노력을 통해 얻은 역량을 바탕으로 일사 후에도 배움을 멈추지 않는 개발자가 되겠습니다.</p>